

은행 3Q 대출태도 강화



Credit Analyst

정혜진

☎ (02) 3772-2667

✉ hyejin.j@shinhan.com

A급 상대적 강세 속 크레딧 강보합 지속

7월 회사채 AA- 3년 크레딧 스프레드는 45bp로 전월대비 1bp 축소되며 강보합 흐름이 이어졌다. 국고 3년 금리가 한달 사이 3.207%에서 3.02%까지 20bp 급락한 가운데 크레딧 스프레드는 벌어졌다 좁혀지기를 반복했다. AA급 이상 크레딧 금리가 전 섹터에 걸쳐 기준금리를 하회, 공사채 금리는 3.19%까지 내려왔다.

금주들어 A급 회사채를 제외한 상위등급 중심으로 스프레드는 확대 전환했다. 주간 공사채 스프레드는 2bp 확대, A+ 회사채는 2.4bp 축소되며 섹터별 방향이 엇갈렸다. 높아진 레벨 부담으로 크레딧 스프레드는 상위등급 박스권 내 등락, AA급 대비 A급의 상대적 강세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2분기 한국 성장률 발표 이후 시장금리 추가 하락 압력도 높다. 민간소비 중심으로 부진한 성장세 확인으로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복된 레벨 부담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 고조, 국채 금리 3% 하향 돌파 시 크레딧 스프레드도 더 좁혀질 동력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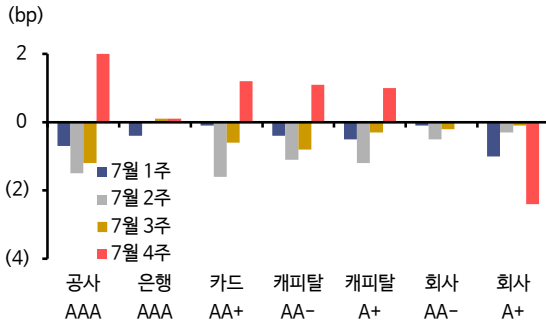
대출 성장률과 하반기 은행채 발행 점검

정부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6조원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책성 대출 3.8조원을 포함, 주택거래 회복세에 기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5월 5.7조원, 6월 6.3조원)이 확대됐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가 9월로 미뤄짐에 따라 시행 전 대출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3분기 은행권 대출수요는 2분기 5에서 3분기 15로 상승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전 차주에서 전분기대비 늘어났다. 대출태도는 -15, 대기업 -3, 중소기업 -11, 가계일반 -19, 주택 -16으로 전 차주에 대해 대출 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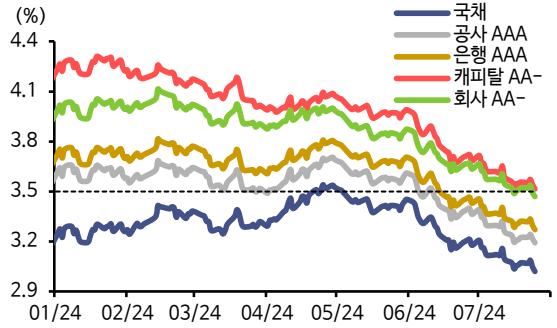
은행권 대규모 만기도래, 상반기 대비 완화될 대출 태도 고려 시 하반기에는 은행채 순발행 압력이 높다는 전망을 제시해왔다. 과거 대출 증감률은 대출 태도보다 수요에 연동되며, 3분기 대출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다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은행 및 정부)과 수요(가계)가 바라는 방향성이 엇갈렸다. 스트레드 DSR을 포함한 정부의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의 증가율 목표, 은행권의 태도 강화는 연초대비 은행채 순발행 압력을 완화시킬 재료로 판단한다.

크레딧 스프레드 주간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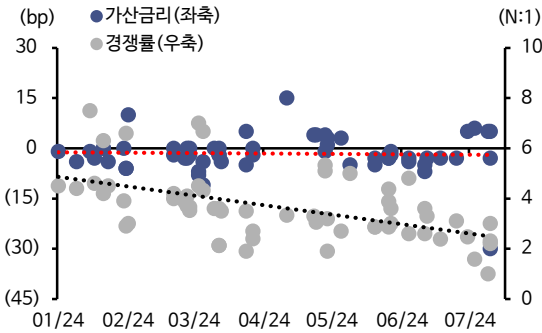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주: 3년물 기준

크레딧 역캐리 장기화, 조정 없는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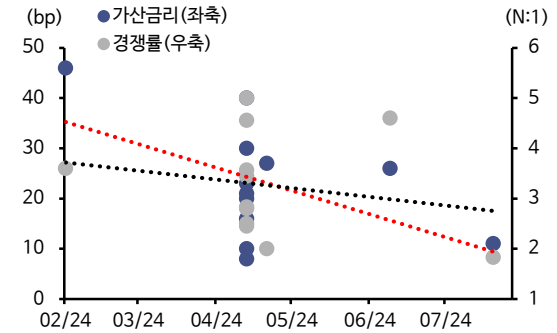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주: 3년물 기준

공사채 경매 경쟁률 및 가산금리 추이(민평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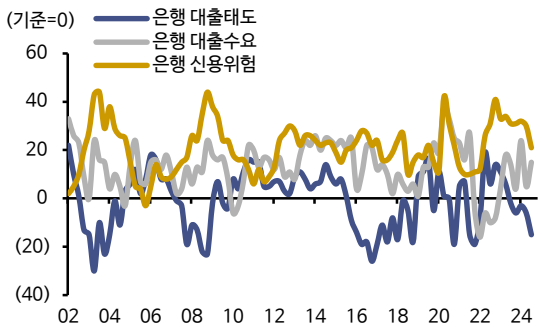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주: 민평대비 가산금리

공사채 경매 경쟁률 및 가산금리 추이(국고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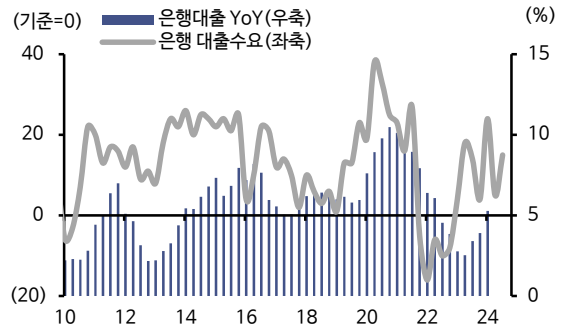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주: 국고대비 가산금리

은행권 대출행태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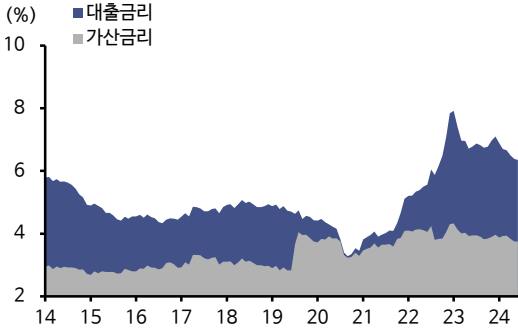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투자증권

수요에 연동한 은행 대출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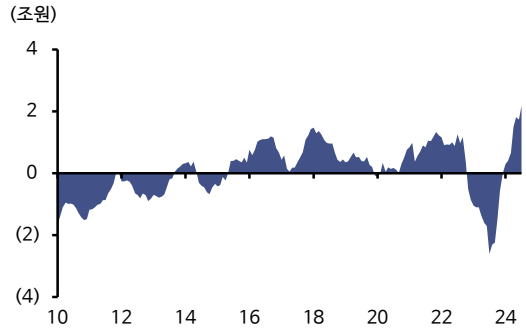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투자증권/주: 시중은행, 지방은행 합산

낮아진 대출 금리, 가산금리 수준 유지(인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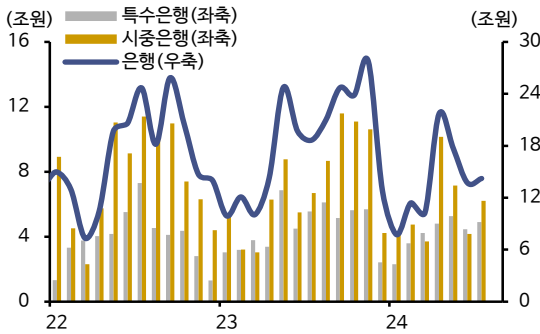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주: 가계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은행 대출 성장세 연동한 은행채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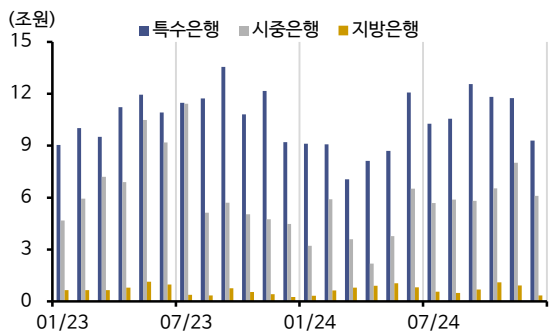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은행채 월별 발행규모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은행채 만기: 9~10월 19조원, 11월 20조원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혜진).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